

「論 說」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한 基本課題

Basic Problems for the Fisheries Development in the West-Coast of Korea

張 謨 鎬

Soo-Ho Chang

I. 問 題 意 識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西海岸의 地域開發의 일환에 속하는 과제이며, 또한 그것은 水産業이라고 하는 특수 산업의 開發에 한정된 과제라고 하겠다.

地域開發이나 産業開發이라고 하는 用語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므로 참신한 뜻은 없으나 그의 과제에 대한 접근의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地域開發의 定義에 대해서도 學者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소박하게 생각한다면 그의 본래의 목표는 「항상 發展의이고 살기 좋은 地域社會를 만들고 그리고 그의 地域社會의 發展이 보다 광범한 지역의 발전과 일체로서 공헌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地域開發은 地域社會의 다면적인 제한을 다시 말하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활동 등 광범한 것으로서 곧 土地와 海洋(漁場)과 그의 모든 시설을 통해서 관계되고 있다.

이러한 活動에 관계하고 있는 主体는 自由經濟體制하에 있어서는 中央政府나 地方公共團體 등 전형적인 經濟政策과 社會政策을 수립하는 活動체는 물론 一般企業과 地域社會諸團體 住民 등 私的活動에 이르기 까지 대단히 多種多様하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地域開發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수의 諸主体의 活動이 직접 간접으로 어떠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요한 것은 地域開發의 담당자로서의 公的 施策機關과 産業活動에 관계하는 諸主体와의 협력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地域 活動은 극히 다면적이기 때문에 地域開發에 대한 研究도 또한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에 걸치는 많은 전문 분야에서 행하여 지고 있으며, 반대로 그러한 각 분야의 연구의 협력과 그의 집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래부터 지역 연구에 관계있는 産業立地論的研究과 經濟地理學的研究을 비롯하여 都市計劃, 土木工學, 建築工學, 河川港灣工學 등 計劃과 施設面에서의 연구와 지역 활동 추진을 위한 전제로서의 行政問題 혹은 財政學의接近과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計量經濟學的研究을 中心으로 한 지역과학이 그의 總合化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의 地域開發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産業開發에 있어서는 産業構造論的研究과 그의 구체적인 담당자로서의 企業의 행동 그의 존립의의, 입지선택에 있어서 혹은 産業公署問題 등에 대한 社會責任論의 전개에 관한 經營學的研究도 중요시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그것은 總合的인 과제이며, 그에 대해서는 理論的이고, 總合的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금일에 있어서는 각 전문분야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관련적 협력적으로 연구 접근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다음에서 産業開發이라고 하는 지역개발의 범주에서 서해안의 水産業이라고 하는 일개 産業의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한 前提的條件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전술한 바와 같이 「항상 발전적이고 살기 좋은 西海岸의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西海岸의 지역사회의 발전이 보다 광범한 국가 전역의 발전의 일환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가 전제조건으로서 취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는 西海岸의 지역사회 자체의 발전과 국가적 발전의 융합적 존재라고 하는 문제이다. 西海岸의 水産業의 발전이 보다 광범한 국가와의 일체적인 발전에 부합되며 西海岸 지역에서 기대되는 기능이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곧 西海岸地域의 바람직한 발전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諸問題가 그 속에서 발전적으로 소화되어서 西海岸地域과 國家 全體의 水産業과의 균형있는 발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과 형태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혁신의 진전이나 市場 구조의 확대 변화속에서 産業的 社會的 文化的 재생활의 규모나 행동 반경이 현저히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종래의 행정구역이나 관행에 의한 地域性은 협소해지고 그 “지역에 고이슴”이 금일의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또는 특정의 경제권이라고 하는 廣域性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廣域性의 미명하에 그의 지역사회의 본래의 당면과제나 존재의 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廣域性이 아니어서는 안 될 것이다.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한 基本課題

둘째는 西海岸의 水産業發展과 地域發展이 상호 밀착하는 開發方法이 요구되고 있다.

한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產業的發展이 그 地域開發의 유력한 추진력이 되는 것이므로 西海岸의 水産業의 發展은 곧 西海岸開發의 유력한 추진력이 되며 그것은 또한 西海岸地域의 社會的發展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은 西海岸의 社會的發展과 단순히 양척면에서 종합적으로 취급된다고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양자가 상호 밀착하는 것과 같은 개발의 方法 여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한 目標設定은 동태적이고 창의적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보면 開發의 目標設定이 정태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곧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해서 特定年次에 特定の 目標나 諸指標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달성을 위한 地域社會의 모든 主体의 발전적인 에너지를 배양한다고 하는 동태적인 과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内外의 水産業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의 항상 변화 이전하는 속에서 발전성이 있는 目標의 設定이 아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째로 西海岸의 水産業의 개발은 그것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추진력이 문제 의식적 접근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곧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과제는 현시점에 있어서의 당면과제를 장기적 관점에 있어서의 과제로서 철저히 파악하는 데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과 같이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볼 때 급후의 西海岸地域의 개발은 문제의식적 접근과 성장문제 접근과를 종합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Ⅲ. 西海岸의 水産業 開發을 위한 基本課題

전술한 바와 같이 한 地域에 있어서의 水産業의 開發에 관한 접근 방법에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고찰될 수 있으나 그러면 다음에서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水産業의 立地論의 觀點에서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水産業을 역사적 관점에서는 漁家經營으로 부터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漁家經營이란 漁家の 居住와 地先水面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漁家經營에 있어서 地先水面은 漁家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漁家經營에 주어진 조건이며 그 漁家가 農業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農土와의 관계에서도 더욱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漁家經營의 成果를 나타내는 것은 地先水面이 가지는 資源의 자연적 풍도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地先水面이 가지는 漁場의 經濟性 또는 生産性이 거기에 회유 도래하는 魚族과 거기에 서식하는 貝介藻類의 서식

정도 곧 漁業資源의 풍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면에서 보더라도 漁家라고 하는 家族經營에서는 勞動力과 地先水面의 면적과의 관계에서 操業規模에는 거의 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 經營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資源의 풍도나 어족의 회유성이 되는 것이다.

地先水面에 있어서 최대의 조업규모를 가지는 定置漁業의 경우를 보더라도 漁具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 漁夫數가 증가될 뿐이며 아무리 漁具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어족의 회유 없이는 조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定置漁業도 결국은 그외의 漁家漁業과 마찬가지로 최종에는 資源問題로 귀결하게 된다.

그러나 漁船漁業에 있어서 漁家生業經營이 企業化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의 漁船規模(經營規模)가 크짐에 따라 그의 조업범위는 地先水面의 범위를 벗어나서 외해로 향하게 된다. 이때 새로히 선정된 외해어장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의 풍도가 문제 된다.

조업활동은 地先水面보다 훨씬 광범한 면적의 漁場에서 행하여 지기 때문에 漁撈活動은 魚群探索과 漁撈의 두 부분으로 분업화되고 전자는 주로 魚群探知機를, 그리고 후자는 漁具를 중심으로 한 採捕裝置의 발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分業化는 더욱 漁場의 이동을 촉진하게 되고 반대로 漁場의 이동은 經營基地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 經營에서 漁船 한 統(隻)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漁船의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經營基地에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한統의 漁船이라도 規模가 확대되어 그에 필요한 資材의 조달이나 漁獲物의 양육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려는 原基地條件과 조업 규모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서 자연 原基地에서 다른 基地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農業經營에 있어서 經營規模의 확대는 주변의 耕地를 흡수하거나 또는 추가 資本의 투하로서 農機具를 구입한다든가 農地를 개량한다든가 혹은 많은 肥料나 우수한 品種을 개량사 용한다든가 하여 보통 基地의 이전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漁業에서는 漁場이 沿岸 漁場에서 近海漁場으로 확대되는 경우 거기에는 農耕地와 같은 연속성은 존재되지 않으며 소요의 漁船 漁具는 물론 對象魚族까지도 변경되는 것이다. 漁業에 있어서 이러한 不連續性은 국제적으로는 領海와 公海의 차를 가져오며 외국 漁船에 대해서는 排他獨占性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漁業經營은 農業經營과는 달리 經營規模가 어느정도 이상으로 커지게 되려는 漁船의 발착 資材調達 漁獲物의 양육 販賣 등의 관점에서 經營基地를 都市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漁業基地의 조건은 보통 훌륭한 漁港條件으로서 나타나나 그것은 주로 港口로서의 物的施設과 그외에 각종의 관련산업이 정비되어 있고 交通條件도 좋고 또한 漁獲物의 소비 人口가 많은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基地를 近代的인 漁港 또는 水産基地라고 한다.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한 基本課題

近代的 漁港을 근거로하여 조업하는 漁業이란 종래의 漁家經營에서와 같은 農漁兼業이라든가 漁村=農村이라고 하는 漁業에서 都市漁業으로 전화하여 漁業專業化 하든가 나아가서는 加工과 결합한 漁業 곧 水産業으로 전환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은 水産基地와 漁場과 消費地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漁場에 가장 가깝고 동시에 소비지이기도 한 곳은 漁村과 地先水面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곧 地先水面의 漁獲物은 그 주변의 市郡 등 소도시나 農村의 비어업자에 판매되므로서 형성되는 經濟流通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基地가 都市로 이전하게 되며는 生産地=漁場과 消費地와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基地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경영상 새로이 대두되게 된다.

예를 들면 西海岸의 機船底引網漁業의 경우 於靑島나 格烈飛島의 近海漁場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 仁川, 群山, 釜山과의 관계에서는 거리상 群山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겠으나 그 漁獲物의 소비지가 만일 서울이나 嶺南地方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仁川이나 釜山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것들이 만일 漁場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면 어느 基地에서든 거리의 차가 없으므로 결국은 巨大한 소비력을 가지는 都市일 수록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條件이란 一長一短의 관계에 있으므로 水産基地를 어디에 구하는가 하는 문제는 漁場의 自然科學的條件 (특히 生物學的 立場에서)뿐 아니라 陸上의 경제조건까지를 감안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水産基地는 관련 産業이 그의 주변에 집중되고 있으면 그러한 하나의 관련 産業 종목은 또한 다른 종목을 흡수한다고 하는 원리에서 더욱 發展해 갈 것이다. 이것은 近代 工場의 설립이 人口增加와 關係企業의 집중에 의해서 工業都市化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漁業이 家族生産經營의 기반에서 탈피하여 漁船을 物的根據로 한 企業으로 이행하게 되며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전면의 地先水面(資源)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며 또한 漁船의 장비와 漁獲物의 양육 판매라고 하는 제조전의 변화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자연 基地의 이전을 초래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漁家經營과 같은 小型漁船만의 基地에서는 漁船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배를 들어 올려 두는 사장만 있으면 되는데 대해서 漁船規模가 100隻급, 이상으로 증대되고 그러한 漁船이 매일 수십척 수백척씩 출입하는 基地에서는 백사장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며 새로이 접안과 어획물의 양육에 편리한 잔교나 부두시설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近代的인 水産基地는 많은 漁港의 歷史를 통해 볼 때 당초에는 漁獲物의 대량 양육 판매에 최적조건을 구비하는 곳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소비인구가 많은 제도시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水産

基地는 관련산업이 병존하는 도시위과 동시에 대소비도시에 인접한 漁港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Ⅳ. 西海岸의 漁港狀況(結論)

그러면 우리 나라 西海岸에 있어서의 漁港狀態는 어떠한가 알아 보자.

현재 西海岸에는 북위 30도 이북에서 休戰線 사이에 약 130개의 漁港(船溜)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A, B, C의 三等級으로 구분해 보면, A級에 仁川, 群山, 木浦의 3개 港과 B級에 大靑島, 延坪島, 德積島, 大川, 長項, 於靑島, 崙岫 蚶島, 法聖浦, 黑山島 등의 10개 港, C級에는 그외의 약 120개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近代的漁港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A級の 3개 港뿐이며 특히 C級은 港口라기 보다 防波堤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船溜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西海岸의 漁業은 주로 소규모의 沿岸漁業에 의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西海에는 沿岸의 광대한 천해 간석지 이외에 의해는 훌륭한 底棲漁場이 있으며 그것은 東支那海까지 미치고 있다. 그리고 배후에는 광범한 農耕地에 人口가 조밀한 農村과 또한 인접의 내륙에는 仁川, 서울, 大田, 全州, 光州 등의 大都市가 있다. 이 중 서울은 600만의 대소비 人口를 가지고 있으며 그외는 76년까지 產業基地化하기 위한 裡里輸出自由地域과 大田, 全州, 光州, 木浦, 仁川 등은 地方工業團地로서 開發獎勵地區로써 설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은 먼저 이들 大消費地와 연결할 수 있는 近代的 漁港의 建設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結論으로서 西海岸에 있어서의 近代的漁港의 建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計劃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소비도시와 地先水面과 地區漁協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地區漁協은 沿岸에 있어서의 유일한 漁民의 組織體이며 漁業經濟團體이다. 그리고 漁獲物은 이들 團體에서 經營하는 魚市場(共販場)을 통해서만 販賣하되 強制規制되어 있다. 그러나 西海岸에는 현재 24개의 漁協이 있으며 그러한 개개의 漁協에서 다 같이 일개의 近代的 漁港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곧 地先水面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전술한 수개소비도시와의 결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몇개의 漁協을 결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결합의 방법에는 여러가지로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경제이론에 입각한 자연스로운 方法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漁業經營의 作業범위와 규모를 확대한 기반에서 漁獲物이 자연 어느 곳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 곳이 總추 漁港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그외의 조건까지도 구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近代的 漁港으로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주로 漁業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나 다른 면에서는 西海岸의 광활한 간석지

西海岸의 水産業開發을 위한 基本課題

의 개발을 위해서 천해양식이냐 干拓이냐 하는 문제에서도 고찰될 수도 있으며 또한 천해양식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對象物의 育成技術이외에 양식土木工學的인 技術의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詳論을 다른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釜山水大教授)

本稿는 今年 10月 27日 全北 群山市의 群山水產高等專門學校에서 開催된 1973年度 韓國水產學會秋季研究發表大會에서 行한 招請講演文이다.